

정의선-최정우 '수소협력' 맞손 트럭 등 1500대 수소차량 전환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업무협약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으로 추진
생산·이용 관련 기술개발 등 협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수소 생태계 조성
에 힘을 보탠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16일 포
항 포스코 청송대에서 '수소 사업 협력
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트럭
등 수소전기차를 1500대 공급하며, 연
료전지 발전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수
소 생산·이용 관련 기술 개발 등에서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양사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탄소 중립 달
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양
사간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분
야를 적극 모색해 협약에 이르렀다.

우선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서 운영하는 트럭 등 차량 1500대를 단
계적으로 수소전기차로 전환기로 했
다. 제철소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
축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연료전지 발전사업도 공동 추진한



김세훈 현대차 부사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유병욱 포
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다. 포스코가 수소를, 현대차그룹이 수
소연료전지를 공급하는 형태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이용 관련
기술 개발 ▲수소전기차에 적용 가능
한 차세대 소재 개발 등 수소에너지 활
용 확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도 주
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해외
에서 진행되는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
트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업을 모색하며, 현대차는 해당 국가
와 인근 지역 수소전기차 등 수요 발굴
도 추진한다.

앞서 양사는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넥쏘에 포스코그룹에서 개발한 무코팅
금속분리판 소재를 적용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다. 수소전기차 양산과 수
소 생산 등을 이어오며 수소 생태계 성
장을 기여해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
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전산업분야와
모든 기업이 당면한 과제이자 지속가
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라며 "포스코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실
질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건강한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르노삼성, 3천억 소진... '구조조정' 불가피

(현금)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 사장
직원에 편지 발송 '구조조정 설명'
'서바이벌 플랜' 추진에 무게 실어

르노삼성자동차가 임직원에게 구조조
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 사장은 최근 직원들의 자택
에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는 회사 경영
어려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
다. 최근 구조조정 추진이 언론에 보도
된 데 대해 직접 직원에 설명하기 위해
서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우선 시노라 사장은 실적 부진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를 똑같이 지출해야
해 회사 손실이 가중됐고 현금 2000억
원도 소진했다며, 지난달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현금 1000억원을 더 지출하
면서 절박함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위기와 자동차 산업 패러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15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
서 열린 기자 초청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
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다임 전환기도 위기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르노그룹 공장간 제조원이 경쟁
이 더욱 심해지면서 르노삼성도 새로
운 차종과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
력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됐다"며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불가피한 희
생을 감수하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가치 제고와 XM3 유럽 수출모델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조정 등 '서바이벌 플랜'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현실적으로 뼈
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지금
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이유다.

쌍용자동차 사태도 암시했다. 국내
경쟁자 중 이같은 상황을 경험하고도
문제를 충분히 빠르게 해결하지 않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까지 이
르게 됐으며, 르노삼성은 이를 반면교
사 삼아 선제적으로 움직여 최대한 신
속히 손익분기점에 도달해 현상황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시노라 사장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
을 임직원 가족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
이 CEO로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가
족 여러분이 르노삼성이 처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바이벌 플랜에
대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환율·유가 상승... 수출입물가 두달째 ↑

한국은행, 1월 수출입물가지수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두 달 연속 동
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데다
유가도 상승세를 타면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1년 1
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월 수출

물가지수는 94.55(2015=100)로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오름
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하락해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
세로 전환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해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의 수출 가격이 올랐다"

고 설명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평
균 1097.5원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
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6% 올랐다.

품목별로는 D램(3.6%)과 시스템반도
체(1.2%) 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경유(8.4%), 휘발
유(12.7%)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8.7%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분 추가 확보

질병청, 화이자 300만명분 구매 진행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계약체결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2300만명분을 추가 확
보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화이자 백신 300
만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
하고, 당초 3분기였던 공급 시작시기를
3월 말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또 그간
구매 계약 논의를 진행해 온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에 대한 계약도 체결
했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해 계약한 1000
만명분에 더해 300만명분을 추가 구매
해 총 1300만명분을 확보했다. 또 계약
사와 조기 공급 협상 결과에 따라 1분
기내 50만명분, 2분기에 300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3월
말 도입되는 백신에 대한 국가 출하 승
인이 완료되면 4월부터 예방접종이 가
능해질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
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요
양병원·시설 고령자의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임상 결과에 따라 65세 이상 고
령층 접종을 시작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백신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하
겠다고 밝혔다. 추가 임상 결과는 3월
말~4월 초 나올 예정이다.

정경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
본부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당장은 65세 이상의 어
르신들께 접종하지 않지만 미국의 임
상시험 결과라든지 외국에서 고령자
에 대한 접종 결과들을 추가 확인하
는대로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며 "만약에 접종이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면 3월 이후에 들어오는 화이
자, 모더나, 안센 같은 다른 백신을 활
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2분기 부터
2000만명분이 순차적으로 국내 공급
될 예정이다. SK가 기술 도입 계약을
맺으며, 국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졌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첫 사례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 원천 기술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
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lee@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오른쪽)가 1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스마트싱스, 추후 신호등·교통정보 연동

>> 1면 '애플카 위에 삼성카...'서 계속

대신 플랫폼을 꾸준히 개발하고 확
대하며 미래 모빌리티를 모두 자사 환
경에서 작동시키게 한다는 포부를 숨
기지 않고 있다.

주인공은 스마트싱스다. 당초 미국
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2014
년 가능성을 알아본 삼성전자에 인수
됐다.

스마트싱스는 사물인터넷(IoT) 플
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전제품뿐
아니라 스위치, 스마트 태그 등 다양한
제품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에도 적용
해 차량과 집을 연결할 수도 있게 됐
다. 추후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다
른차나 신호등이나 교통 정보 등과도
연동하면서 커넥티드카를 이루는 핵심
요소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특히 스마트싱스는 개방형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활용 방법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구글과 파트너십을

통해 네스트와 공식적으로 연동하는
등 지원 기기를 늘렸으며, 비공식적으
로는 지그비 등 통신 방식만 맞으면 자
체적으로 연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
울러 스마트싱스는 애플리케이션 방식
으로 안드로이드뿐 아니라 아이폰, iO
S에서도 작동한다.

삼성전자도 스마트싱스의 개방형
생태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체적
으로 지원 기기를 개발하기보다는 파
트너들에 자유롭게 개방한다는 방침
이다.

빅스비도 스마트싱스의 중요한 요
소다. 스마트싱스가 단순히 기기들을
연동하는 플랫폼이라면, 빅스비는 이
를 이해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패턴을
제공하거나 명령을 인식하는 등 역할
을 한다.

이같은 기술은 이미 삼성전자 '디지
털 콕핏'에 적용됐다. 차량용 빅스비와
스마트싱스로 차량뿐 아니라 집까지
연결해 원격으로 작동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재웅 기자